

덕 윤리의 한국기독교적 재론을 위한 조건과 과제*

문시영 (남서울대 교수)

I. 들어가는 말

II. 덕 윤리의 한국기독교적 재론, 그 조건과 과제

1. 덕 윤리의 한국기독교적 재론의 자리
2. 덕 윤리의 한국기독교적 재론의 조건
3. 덕 윤리의 한국기독교적 재론의 과제

II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9.44.08>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2723).

• ABSTRACT •

Virtue Ethics and Korean Church:
A Reargument for Christian Morality

Moon, Si-Young (Prof. Namseoul University)

For enhancing the morality of Korean Christianity, this article proposes the reargument of virtue ethics as like MacIntyre and Hauerwas say. Since Korean Christianity has been based on virtue, it cannot be indifferent to the reargument of virtue. Unfortunately, the experience of Korean Christianity on virtue is close to a trauma that does not actively engage in rethinking virtue. In this sense, Korean Christian reargument of virtue ethics should be a discuss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elf-reflection. Above all, Korean Christianity have to apologize that making the virtue as a tool. Korean Christianity has made virtue a instrument for church growth and prosperity theology. As a result, virtue ethics was severely distorted. In some cases, Christians have overlooked immoral things by taking the cause of protecting the church community. Korean Christianity have to overcome the instrumentalization of virtue and pursue the internalization of virtue for enhancing the morality. And Korean Christianity have to fulfill the discipleship faithful to Jesus narrative.

Key words: Virtue Ethics, Conflict, Distortion of Virtue, Restoration of Virtue, Discipleship.

I. 들어가는 말

한국기독교의 도덕적 성숙이 긴요하고 절실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한다. 문제는 어떤 관점에서 해법을 찾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글은 한국기독교의 도덕적 성숙에 관한 논의를 풍요롭게 확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덕 윤리를 통한 접근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덕의 한국기독교적 재론을 통해 도덕적 성숙을 추구한다. 맥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가 촉발시킨 덕의 재론은 현대사회의 윤리적 위기에 대한 진단 및 해법과 연관된다. 아울러, ‘덕’을 배경으로 했던 아시아문화권에 속한 한국의 기독교 윤리학이 어떤 형태로든 덕의 재론에 무관심할 수 없다. 말하자면, 맥킨타이어의 ‘덕의 재론’과 하우어워스의 ‘덕의 기독교적 재론’에 관심하면서 ‘덕의 한국기독교적 재론’을 시도하는 셈이다.

안타깝게도, 덕에 관한 한국기독교의 경험은 덕의 재론에 적극적으로 관심하지 못하게 하는 트라우마와도 같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덕의 과잉 혹은 덕에 대한 염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은 결과적으로 덕의 재론에 무관심하게 하고 덕 윤리를 통해서도 윤리적 성숙에 이를 수 없다는 냉소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면서, 이 글은 한국기독교의 도덕적 성숙을 위해서 덕의 ‘한국기독교적’ 재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유교적 덕과 기독교적 덕의 교차점에 있는 한국기독교가 덕을 어떻게 수용하였으며 어떤 이유로 덕의 왜곡을 겪어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포함된다. 특히, 한국기독교에서 덕에 관한 재론이 바른 것이 되기 위한 조건과 과제에 대해 성찰하고자 한다.

II. 덕 윤리의 한국기독교적 재론, 그 조건과 과제

1. 덕 윤리의 한국기독교적 재론의 자리

도덕철학자 맥킨타이어가 『덕의 상실』(*After Virtue*)을 통해 촉발시킨 덕의 재론은 현대사회의 윤리적 위기에 대한 진단 및 해법과 관련된다. 맥킨타이어는 칸트적 의무론에서 비롯한 ‘계몽주의적 기획’(the modern project 혹은 the Enlightenment project)을 문제 삼는다.¹⁾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연적 목적을 도덕적 추론에서 배제하고 도덕의 보편적인 정당화를 추구하는 계몽주의적 기획을 추종하면 니체적 허무주의에 귀착하게 된다는 진단이다. 현대사회의 윤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를 회복하고 공동체주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맥킨타이어의 관점은 영미철학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숭한 비판과 논박을 받았으며 그 찬반논변은 현재진행형이다.

덕 윤리에 대한 신학적 반향으로는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의 경우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코트바(Joseph J. Kotva, Jr.)에 따르면, 덕 윤리와 기독교적 확신을 상호유익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고 하우어워스를 대표적인 경우로 제시할 수 있다.²⁾ 하우어워스 자신이 맥킨타이어와 상당한 교분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저술들을 통하여 신학적 수용의 가능성과 과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기독교공동체주의’ 혹은 교회윤리(ecclesial ethics)라고 불리는 하우어워스의 관심은 단순히 맥킨타이어를 답습했다기보다 덕 윤리와 기독교화의 친화성 내지는 수용가능성을 긍정하면서 ‘예수 내러티브’에 기초한 덕 윤리를 제

1) 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 2nded.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4), 1-13.

2) Joseph J. Kotva, Jr., 문시영 역, 『덕 윤리의 신학적 기초』(성남: 도서출판 긍홍, 2010), 267.

시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³⁾ 여전히 진행형인 셈이다.

이 글의 주된 관심은 덕 윤리를 한국기독교의 지평에서 재론하는 데 있다.⁴⁾ 맥킨타이어에게서 촉발된 덕 윤리의 재론과 하우어워스의 기독교적 반향이 과연 한국기독교와 연관될 수 있을지, 특히 한국기독교의 도덕적 성숙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분야에서 참고할만한 선행연구들이 상당하다. 한국기독교에 미친 아시아 문화의 영향 특히 유교와의 연관성을 다루는 선행연구도 비교적 풍요롭다. ‘신’(神) 개념에 대한 비판적 비교작업은 물론이고 죽음의 문제에 대한 성찰, 인성교육 및 목회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비교를 통한 비판과 극복의 과제를 제시하는 패턴으로 발전되어 왔다.

대부분의 경우, 유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갈등’의 관점에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윤리분야의 글에서는 한국기독교에 투영된 유교적 배경이 기독교윤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교회와 권위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사회문제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이유를 유교의 영향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그렇다. 한국의 기독교윤리가 유교적 배경에 매몰되어 형식적으로는 유교를 버린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전근대적 유교윤리로 옷을 바꾸어 입는 방식을 받아들임으로써 윤리적 퇴행이 일어났다는 주장이다.⁵⁾

3) Stanley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4) *흥미롭게도, 노트르담대학 출판부에서 책이 나온 것까지 맥킨타이어와 닮았다.

4) 이 글에서는 맥킨타이어가 말하는 ‘덕 윤리(virtue ethics)와 아시아 문화의 축으로서의 유교의 ‘덕 전통’을 구분하기보다 상호호환적인 관계로 가정하여, 덕 혹은 덕 윤리라는 표현을 혼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한국기독교’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하우어워스로 대변되는 덕 윤리의 신학적 성찰과의 구분을 의도한 것으로서, 덕 윤리가 한국의 기독교에서 어떤 의미로 자리매김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는 취지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흐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상호관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모색하거나 혹은 성숙의 과제를 제시하려는 노력들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 보인다.⁶⁾ 특히, 신진학자들에 의해 기독교와 아시아 문화를 양극단으로 간주하여 비교하고 비판하는 관점을 넘어서고 있다.⁷⁾ 관심을 끄는 선행연구로, 유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근대 초기 안동지역에 나타난 유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교로서는 국권회복과 민중계몽을 위해 기독교를 부정할 필요는 없었으며 기독교는 주자학이 제시하는 도덕철학을 부정할 필요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양자는 서로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각자의 한계를 상대방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었다는 관점이다.⁸⁾

과연, ‘덕의 재론’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기독교는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하는 것일까? 덕의 폐기인가 혹은 덕의 융합인가? 양자택일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 덕의 한국기독교적 재론은 덕의 기독교의 유교화도 아니고 유교의 기독교화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의 도덕적 성숙

-
- 5) 박충구, “한국교회의 기독교윤리학적 성향과 그 문제점,” 『사회이론』 제35집 (2009), 133~161.
- 6) 배요한, “이퇴계와 이수정의 종교성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 유교와 한국 개신교의 내적 연계성에 대한 고찰,” 『장신논단』, 제45권 1호 (2013), 소요한, “초기 한국 기독교 사상의 유교적 이해,” 『신학논단』 제92집 (2018), 이은선, “유교와 기독교, 그 만남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하여,” 『신학사상』, 제82집 (1993), 이정배, “유교와 기독교의 대화, 그 한국적 전개: 평가와 전망을 중심으로,” 『신학과 세계』 제2004-3호 (2004) 등을 참고할만한 글들이다.
- 7) 김권정, “한국기독교 초기 유교지식인의 기독교사회윤리 연구: 월남 이상재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20집 (2010), 설충수, “기독교윤리의 관점에서 바라본 유교 인성론(人性論) 연구: 에른스트 파베르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36집 (2016), 그리고 윤리분야의 논문은 아니지만 김봉근, “기독교와 유교 사상의 창조적 융합으로서의 윤동주 시 읽기,” 『상허학보』 제54집 (2018) 등을 참고할 수 있겠다.
- 8) 권상우, “안동지역의 선비-기독교인 연구(2): 기독교적 유교와 유교적 기독교,” 『민족문화논총』, 제68집 (2018), 21~22.

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고 덕의 재론이 바람직한 것이 되기 위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덕의 재론’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덕에 관한 한국기독교적 재론에 요구되는 조건을 도출하고 한국기독교의 윤리적 성숙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려는 관심이라 하겠다.

2. 덕 윤리의 한국기독교적 재론의 조건

덕 윤리의 한국기독교적 재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덕의 왜곡에 대한 자성이다. 맥킨타이어의 제안이 큰 관심을 받는다고 해서, 혹은 하우어워스의 신학적 반향이 흥미롭다고 해서, 덕에 관해 재론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별히, 한국기독교에서 덕에 대한 재론은 신중해야 한다. 덕의 토양 속에 있지만, 덕 윤리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배경에는 ‘덕의 왜곡’ 혹은 ‘덕의 과잉’ 및 그로 인한 ‘덕의 냉소’라는 중요한 요소가 자리하고 때문이다. 덕이 한국기독교에서 왜곡된 과정과 현실에 대한 자성이야말로 덕의 재론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1) 덕 윤리의 수용에 관한 자성: 왜곡의 우려

일반적으로, 서구사상으로서의 기독교를 만나는 과정에 ‘갈등’이라는 요소가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귀츨라프(1832), 존 로스(1872), 등 여러 차례의 접촉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개신교의 한국 선교는 1880년 이후에 이루어졌다. 1876년의 개항은 한국 근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한국기독교 역사에서도 중요한 발전을 가져온다.⁹⁾ 이 과정에서, 가톨릭은 한국의 전통가치와 크게 상충되었고 당시 선교지역 어느 곳에서도

9) 이상규,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 (서울: 생명의 양식, 2007), 18.

다 철저한 충돌과 갈등을 야기했다. 한국의 초기교회 형성과정도 수월한 것은 아니었다. 가톨릭의 선례에 의거한 척사위정(斥邪律正)의 정책은 기독교 선교의 걸림돌이었다.¹⁰⁾ 그 결과, 기독교와 한국문화의 축으로서의 유교의 만남은 갈등을 특징으로 했다는 것이 한국교회사 연구한 역사신학자들의 주류 의견이다. 유일신 신앙의 강조와 조상에 대한 제사배격 등은 대표적인 갈등의 경우라 하겠다.

흥미롭게도, ‘덕’에 관해서는 갈등이 부각되지 않는다. 일견, 덕의 교차 내지는 융합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발견된다. 우선, 성경번역의 경우를 살펴보자. 한중일 3국의 성경은 ‘덕’을 번역함에 있어서 갈등보다는 교차에 가깝다. 중국어 성경의 영향이 크기는 했지만,¹¹⁾ 덕에 관해서는 관심이 공유되고 있는 듯싶다. 예를 들어, 롬15:2를 번역하면서 한글성경은 ‘덕을 세우도록 하라’로, 중국어성경은 ‘建立德行’으로, 그리고 일본어 성경에서는 ‘徳を 高めるた’로 표현했다. 한자성경을 기본으로 삼았기 때문이겠지만, 한글 혹은 일본어로 다른 표현을 적용하지 않고 수용했다는 점에서, 한중일 3국의 기독교는 ‘기독교의 덕 개념’과 ‘한자문화(특히 유교)의 덕 개념’ 사이의 교차점에 있는 셈이다.

특히, 한글성경에서는 명사로서의 ‘덕’(德)과 ‘덕스럽다’의 형용사로 나누기보다 ‘덕’이라는 명사와 ‘세우다’라는 동사를 합성하여 ‘덕을 세우다’로 표현한다.¹²⁾ 물론, ‘덕스럽게 하자’는 관용구를 쓰기도 한다. 굳이 따지자면, 우리말 어법에 맞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표현으로 남아있다. 특히, 바울서신 번역에서 ‘덕을 세우다’의 표현이 두드러진다. 바울서신에만 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베드로서신에서도 사용되지

10) 서정민, 『한국교회의 역사』 (서울: 살림출판사, 2003), 5~16.

11) 민영진, 전무용, “한국어 번역 성경에 나타난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의 영향,” 『성경 원문연구』 제19집 (2006), 176~199.

12) 이에 대해서는 문시영, “‘덕을 세우다’의 윤리적 성찰,” 『김철영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08)을 참고하기 바란다.

는 하지만, ‘덕을 세우다’의 형태는 아니다. 바울서신에서 ‘덕을 세우다’가 아닌 경우도 있다. 윤리학에서 말하는 ‘덕’(ἀρετή)은 빌립보서 4:8에서 단 한 차례 명시적으로 사용되었다. ‘ἀρετή’는 고대 그리스철학자들이 사용했으며 바울 당시의 스토아 철학자들 역시 이 단어를 사용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ἀρετή’를 어떤 의미와 의도로 사용했는가 하는 점이다. ‘탁월함’(par excellence)를 기본으로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울은 당시 스토아철학을 주도한 세네카의 용법을 염두에 두면서도 기독교적 특성들을 담아내려 했을 듯싶다.¹³⁾ 특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탁월함을 구현하도록 권면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한글성경의 번역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윤리적 의미의 ‘덕’이 아니라 ‘οἰκοδομῆ’ 혹은 동사 ‘οἰκοδομέω’이다. ‘건축하다’ 혹은 ‘일으켜 세우다’의 뜻이지만, ‘덕을 세우다’로 의역된다. 이 경우가 우리의 관심사와 직결된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뜻하는 것임은 물론이다.¹⁴⁾ 흥미롭게도, ‘οἰκοδομέω’가 다르게 번역된다. 복음서에서는 ‘건축하다’는 원래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바울서신에서는 교회공동체를 세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쓰인다. ‘흠어짐’, ‘분열’ 등 ‘세움’의 저해요소와는 반대되는 의미, 즉 ‘강하게 하는 것’, ‘일치’, ‘결속력 강화’ 등의 의미이다. 말하자면,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의 강화 및 일치와 연합, 그리고 성장이라는 의미로부터 ‘전체를 조화롭게 하나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¹⁵⁾ 한글성경에서 덕을 언급한 경우들이 지혜, 용기, 절제, 정의와 같은 고전적 4주덕의

13) 최승락, “바울의 덕 사상과 덕 철학의 접점 찾기,” 『성경과 신학』 제59집 (2011), 39.

14) 참고로, 인터넷 검색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이코스(집)와 ‘데모(건축하다)의 합성어로 ‘집을 세우다.’ 성경에서는 ‘덕을 세우다’로 번역된다(살전 5:11). 덕을 세우는 자세가, 건축자가 정성을 다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15) 문시영, “한국교회와 덕의 재론을 위한 조건,” 『남서울대학교 교수논문집』 제20집 (2014), 7-24.

구체적인 덕목들을 특정하여 말하기보다 ‘덕을 세우다’로 표현한 이유 역시 다르지 않아 보인다. 덕목들의 실천을 권장하는 측면도 필요하겠지만, 교회공동체를 위한 행동규범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간으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바울의 맥락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한자로 표현하여, ‘건덕’(建德)이 한국기독교에서 순기능으로 작용했던 측면도 있었다. 1907년 ‘평양 대(大)부흥’은 한국교회가 체험한 부흥의 중요한 상징이다. 영적 각성은 교회의 부흥과 함께 도덕적 변화로 이어졌다.¹⁶⁾ 부흥사경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회개했으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윤리적 변화를 결단하여 실생활에서 변화를 실천에 옮겼다. 이 과정에 나타난 도덕적 변화와 실천의 모습들은 도덕적 금지사항과 도덕적 권장사항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도덕적 금지사항은 복음 이전의 옛 생활에 대한 청산 혹은 극복과제들을 말한다. 축첩, 여성차별, 신분차별, 도박, 음주, 흡연 및 노동천시 등 여러 분야의 생활문화 개혁을 통한 영적, 도덕적 개혁으로 이어졌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축첩을 하던 경우, 세례와 입교를 위해 반드시 결단하고 도덕적 변화를 보여주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선교초기 한국교회는 사회윤리의 변혁을 추구했다. 백정해방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신분차별 극복의 실천에 관한 이야기들은 중요한 기록이다. 한 마디로, 선교초기 한국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손쉬운 일이 아니었다. 복음에 기초한 영적 체험에 도덕적 결단과 변화가 요구된 셈이다.

도덕적 금지사항과 함께, 도덕적 권장사항이 있었다. ‘건덕’이 그것이다. 교회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공동체의 성장과 유지 및 운영을 위한

16) 여기에 소개된 예들은 <국민일보>에 연재된 ‘이야기 한국교회사’와 ‘새롭게 읽는 한국교회사’를 참고하여 필자의 문체로 바꾸어 쓴 것임을 밝혀둔다.

공동참여와 공동책임이라는 윤리적 과제가 있음을 강조해준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은혜롭게 하자’, ‘덕스럽게 하자’, 혹은 ‘교회의 건덕을 위해’ 등등의 명분으로 자행되어온 도덕부재의 안타까움이 한국교회의 윤리적 성숙을 가로막아온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왜곡을 자행한 것이 문제이지 건덕의 전통 자체는 평가되어야 한다. 참고할 것은 금지사항과 권장사항은 동전의 양면과 같았다는 점이다. 복음을 중심으로, 한편으로는 죄를 회개하고 청산하며 다른 한편으로 교회에 덕을 세우고자 하는 노력이 병행되었다.¹⁷⁾ 오늘날까지 한국기독교의 규정과 문서들에서 여전히 덕을 언급하는 것도 이러한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질문이 생긴다. 왜, 한국기독교에서는 ‘덕을 세우다’로 번역했을까? 한자문화권 3개국의 공통점일 뿐일까? 번역과정에 번역자의 신학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¹⁸⁾ 단지 번역의 문제라기보다 인문학적 교차의 측면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물론, 성경번역자들의 한문소양이 중요한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¹⁹⁾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야 할 부분도 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위한 관심이었을 듯싶다. 실제로, 바울은 ‘그레코-로만’이라는 사회적 배경과 유대교 회당이 상존하는 종교적 배경 속에서 교회가 일종의 ‘커뮤니티 형성기’를 겪고 있으며 공동체적 배려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한국기독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들의 공동체로서 커뮤니티 형성기를 겪고 있었다는 점은 중요한 단초이다. 한국적 의미의 기독교공동체주의가 구현되고 있었던 셈이다. 동시에, 공동체를

17) 문시영, “복음에 합당한 은혜윤리를 재건하라,” 『목회와 신학』 제303집 (2014.9월호), 94-99.

18) 김연진, “성경번역 사역에서 번역자의 신학적 의도가 미치는 영향,” 『안양대논문집』, 제1집 (1996), 127-147.

19) 김성은, “이수정의 성경번역과 계몽문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3집 (2015), 73.

위한다는 명분으로 유교적 권위주의가 혼합되었을 우려가 크다. 한국기독교에 미친 유교적 영향 안에 ‘덕’을 명분으로 하는 ‘유교 가족주의’의 폐단을 변혁시키지 못한 채 답습해 온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파벌과 권위주의의 중첩이라는 유교 가족주의의 폐단이 한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착안하여 그 폐단을 극복할 가능성이 유가정치사상에 내재하는지를 고찰한 어느 연구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파벌과 권위주의가 다양한 역사적 원인들 속에서 증폭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유교 자체의 극복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²⁰⁾ 어쩌면, ‘덕’이라는 교차점을 통해 이러한 영향이 한국기독교에도 스며들었던 것은 아닐지 자성해야 한다.

한국기독교가 덕의 교차점에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개념적 혼란 또는 혼합의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차점으로서의 덕에 대한 개념적 혼동 내지는 혼합이 덕의 한국적 왜곡 및 실패를 낳았을 우려가 그것이다. 번역어로 사용된 ‘덕’을 유가철학의 그것과 혼동하거나 혼합시킬 위험이 없지 않다. ‘도를 닦고 덕을 쌓자’(cultivate tao and inculcate virtue)는 관점이²¹⁾ 기독교의 덕 개념과 교차하면서 왜곡이 초래되었을 위험은 예측가능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유교 혹은 유가철학이 ‘덕 중심의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 안에는 의무론적 요소도 들어있지만 행위에 대한 평가보다 행위자에 대한 평가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덕 윤리에 속한다고 하겠다.²²⁾ 하지만, 한자문화권에서의 덕은 서양의 ‘ἀρετή’와 같지 않다. 심지어, 인간 이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①천지자연의 원리 또는 기운, ②

20) 김도일, “유교 가족주의의 이중성: 파벌과 권위주의의 유가적 기원,” 『철학』, 제135집 (2018), 1~22.

21) 황경식, “왜 다시 덕 윤리가 문제되는가?,” 『철학』 제95집 (2008), 220~221.

22) 장동익, “덕 윤리적 관점과 유교윤리,” 『도덕윤리과교육』, 제36집 (2012), 178~185.

인간의 천부적 본연성, 즉 인간됨의 내적 품성, ③실천적 능력, ④타인에 대한 시혜성 등 다양한 관점을 담고 있으며 어느 하나의 뜻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 또한, 덕은 정치원리로도 작용했다. 정치에 대한 덕 중심의 접근을 말해주는 것인 동시에 덕을 정치의 이상으로 삼았다.²³⁾ 말하자면, 서양윤리학의 ‘ἀρετή’와 다르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덕을 세우다’와도 같지 않다. 무엇보다도, 성경번역과정에서 유교의 덕 개념이 교차되면서 바울의 관점과 명확하게 매치되었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다.

2) 덕 윤리의 현실에 관한 자성: 덕의 도구화

덕 윤리의 수용에 관한 자성과 더불어 더 크게 관심해야 할 것이 있다. ‘덕의 도구화’ 문제이다. 한국기독교가 덕 윤리에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인 것은 덕의 왜곡 때문이라는 인식은 덕의 왜곡이 누적되어 왔으며 덕에 대한 냉소를 낳았다는 진단에 기초한다. 사실, 한국기독교가 덕을 배경을 하는 아시아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덕의 재론에 관심하지 않는 것은 덕 개념을 몰라서도 아니고 덕의 중요성을 외면해서도 아니다. 오히려 덕의 과잉이 문제였으며 덕의 왜곡을 낳았고 덕에 대한 염증으로 귀결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²⁴⁾

무엇보다도, 남용과 왜곡을 거듭해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덕의 왜곡이라는 표현은 덕의 교차와 융합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조차도 어렵게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 또한 덕의 남용이라는 것은 실천적 지평에서 덕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한국기독교의 덕 담론이 선교초기의 변혁적 특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왜곡되고 있다는 인식

23) 조남욱, “유교정치에서의 덕의 문제,” 『윤리연구』, 제29집 (1990), 223-228.

24) 이 글에서 말하는 자성과 실천의 주체는 덕 윤리를 재론하려는 학자들이라기보다 한국 기독교에 속한 모두의 몫이어야 한다. 한국기독교의 도덕적 성숙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인 셈이다. 이것은 덕 윤리 자체가 상실되었다기보다 남용되고 왜곡되는 과정을 겪었다는 뜻으로 읽어내야 한다.

커뮤니티 형성에 있던 선교초기의 한국기독교에서는 공동체를 세워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관심사였다. 문제는 선교초기와 사뭇 다른 상황이라 할 근대화 과정에서 결정적인 왜곡이 자행되었다는 점이다. 교회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교회지도자들과 공동체구성원들의 실수와 죄들을 눈감아주고 덮어주려는 경향이 생겨났다. 이것은 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끄럽게 만드는 일 자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덕을 명분 삼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복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말아야 하고 지도자들의 실수까지도 덮어주어야 한다는 행동양식으로 변질되어버렸다. 말하자면, 덕 윤리 전통이 ‘도구화’되어버린 셈이다.

‘덕스럽게 하자’, 혹은 ‘교회의 건덕(建德)을 위해’ 등등의 명분으로 자행되어온 도덕성 부재가 한국기독교회의 윤리적 성숙을 저해했고 위계질서를 요구하는 권위주의와 맞물려 다양한 문제들을 낳고 있다. 사실, 한국기독교는 지도자들에게서 비롯된 권력지향성으로 인해 다양한 폐단이 발생했고 그 해소법은 순응주의적 태도의 요구였다. 다른 말로 하자면, 타협의 불가능과 순응의 강요가 이어져 왔다.²⁵⁾ 교회공동체를 향하여 표방해온 ‘덕스럽게 하자’ 혹은 ‘덕을 세우다’를 남용해 왔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뼈저리게 자성해야 할 부분일 듯싶다.

나아가, 덕 윤리의 배경이 되는 공동체주의를 왜곡하여 도덕적 가치들을 공동체에 내재하는 가치들에 종속시켜 버리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²⁶⁾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25) 고유식, “기독교 폭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목회신학적 돌봄 연구: 한국 교회 내 권위주의문화와 권력중심문화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목회와 상담』, 제30집 (2018), 7-42.

26) 선우 현, “공동체주의의 그림자: 신보수주의의 정당화 논리,” 『사회와 철학』, 제29집 (2015), 23-78.

을 공동체주의가 아닌 ‘공동체우선주의’에 해소하려는 경향이 한국기독교에 자리 잡은 것이 문제일 수 있겠다. 덕 윤리 자체의 한계요소들 중에도 위계질서와 권위주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덕 윤리의 배경이 되는 공동체주의가 권위주의로 둔갑해 버린 셈이다. 이것이야말로 위험천만한 오류와 왜곡이다. ‘덕스럽게 하자’를 남용하여 덕에 대한 관심을 공동체 보호의 논리로 도구화해버린 셈이다.

‘덕을 세우다’의 남용은 한국기독교의 보수화 문제에도 연결된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한국기독교가 변화하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여전히 보수성이 강한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²⁷⁾ 솔직히, 한국기독교는 정치적 성향에서, 가치관에서, 사회윤리에서 보수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덕을 세우다’의 남용이 하나의 왜곡된 문화로 자리를 잡은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뜻에서, 덕의 남용은 덕의 한국기독교적 재론에서 자성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덕의 남용 및 도구화를 넘어서 덕의 성경적 본질에 대한 바른 인식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국교회의 덕 윤리 전통이 은혜만능주의로 전락한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이것은 덕의 왜곡에 해당한다. 남용되고 도구화된 덕 전통이 결과적으로는 성경적 본질에서 벗어나 왜곡되고 말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뜻이다. 덕의 남용과 도구화가 진행되면서 ‘덕스럽게 = 은혜롭게’의 변질된 공식이 적용되었다는 점은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라 하겠다. 결과적으로 ‘은혜만능주의’로 전락하여 덕 윤리 전통만 아니라 은혜의 복음적 가치를 왜곡시켰다. 어느 새, ‘덕스럽게 하자’는 ‘은혜롭게 하자’는 것과 동치가 되었고 의미상으로는 교회공동체의 문제들을 눈감아주거나 덮고 지나가자는 행동양식으로 곡해되어, 진정한 용서와

27) 소요한, “초기 한국기독교 사상의 유교적 이해,” 『신학논단』, 제92집 (2018), 221~244.

개선을 위한 자정의 노력이 교회 안에서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한국기독교에 나타난 덕의 도구화는 변영신학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한국사회가 ‘압축성장’을 이룩한 모습은 교회성장과 신앙적 지향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교회성장이 변영신학과 짝을 이루어 덕의 도구화를 가속화했다는 점이 문제라 하겠다. 교회성장 자체에 대한 찬반논변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변영과 성도 개인의 변영을 도덕보다 우선시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교회성장’의 추구하고 ‘변영신학’의 주도로 특징되는 한국기독교의 성장과정에서 덕 윤리에 관한 바른 인식과 실천적 관심은 급격히 약화 혹은 생략되었고 결과적으로 덕 윤리 자체를 왜곡시켰다는 점, 그것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돌이켜보면, 한국기독교는 팽창적 교회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복음은 바벨탑에 갇혀 버린 것은 아닐지 자성이 필요하다.²⁸⁾ 변영신학(prosperity theology) 내지는 변영의 복음(gospel of success, prosperity gospel, the health and wealth gospel)이 한국기독교를 휩쓸었고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적 신앙’의 물결이 강하게 밀려왔다. 변영신학의 자성을 촉구하는 글에서 ‘최고부자 하나님의 축복’, ‘신념과 자기최면’, 그리고 ‘부자 예수와 값싼 은총’의 문제를 지적한 것처럼,²⁹⁾ 한국기독교가 속히 극복해야 할 요소이다.

변영신학이 한국기독교에서 교회의 급성장에 상당부분 기여했다는 점은 매우 우르스럽다. 변영신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정적으로 변영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세상에 대해 ‘나쁜 증인’이 되게 하고 만다.³⁰⁾ 그것은 탐욕의 정당화와 다를 것이 없으며, 탐욕은 그리

28) 이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추천한다. Hank Hanegraaff, *Christianity in Crisis*, 김성웅 역, 『바벨탑에 갇힌 교회』(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29) 류장현, “변영신학에 대한 신학적 비판,” 『신학논단』, 제61집 (2010), 7~30.

30) W. W. Gasque, “변영신학과 신약성경,” 『성경과 신학』, 제17집 (1995), 54.

스도인을 면제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탐욕에 놀아나게 된다면 그것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단계를 넘어 ‘치명적’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거절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³¹⁾ 복음보다 번영이 우선시되는 경향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앙을 번영의 도구적 수단으로 변질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는 뜻이다.

덕 윤리의 재론과 관련하여 번영의 복음을 문제 삼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번영신학은 진정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약화시키고 도덕적 성숙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위험요소이기 때문이다. 혹은 윤리를 부차적인 것으로 전락시키는 위험으로 치닫게 한다. 번영을 위해서라면 윤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정당화시키기도 하고, 윤리는 번영 이후에나 고려할 문제라는 인식을 낳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덕 윤리는 번영신학이 일구어 낸 교회성장에 밀려 교회의 도덕적 문제들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했고 성화(sanctification)를 강조하지 못했다.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덕 윤리가 번영신학과 결탁 내지는 번영신학에 편승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린 셈이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덕의 남용과 도구화가 덕의 왜곡으로 이어져 한국기독교에서의 덕에 대한 관심은 사라져버렸거나 배척당하는 현상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3. 덕 윤리의 한국기독교적 재론의 과제

앞 절에서, 한국기독교는 덕의 수용과 현실에서 ‘덕의 도구화’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덕의 폐기로 이어져야 할 논의라기보다 덕의 바람직한 재론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31) 문시영, “탐욕의 길 vs. 제자의 길: 본회퍼 윤리의 한 응용 -『나를 따르라』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98집 (2015), 182.

한국기독교에 자리 잡은 덕의 전통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 남용되고 왜곡된 채로 있지만, 여전히 ‘덕을 세우다’ 혹은 ‘덕스럽게 하자’는 행동양식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덕의 도구화를 방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덕의 도구화를 극복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덕의 재론을 이끌고 있는 맥킨타이어에 대한 기독교적 반향이라 평가되는 하우어워스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를 답습하듯이 수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덕의 한국기독교적 재론 과정에서 응용적으로 읽어내야 한다. 이 부분에서 특별히 두 가지에 주목해야 한다. ‘덕의 성품화’와 ‘제자도의 실천’이다. 덕의 성품화는 덕의 도구화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제자도는 덕 윤리의 기독교적 실천과제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덕의 본질에 대한 관심: 덕의 성품화

한국기독교에 나타난 덕의 도구화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덕의 본질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는 일이다. 덕의 실패를 단언하거나 덕의 폐기를 말하기보다 덕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특히, 덕 윤리가 ‘행위’(doing)보다 ‘존재’(being)에 관심하면서 성품의 문제에 주목한다는 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맥킨타이어와의 깊은 교감을 엿보게 하는 흔적이기도 하다.

하우어워스의 진단에 따르면, 교회는 어느 사이에 청소년이 도덕을 배우는 곳쯤으로 전락했고, 심지어 ‘하지 말라’ 혹은 ‘해라’의 명령과 같은 관습적 도덕 정도를 가르치는 곳에 불과하다고 오해받고 있다.³²⁾ 성품에 대한 관심을 상실했다는 진단이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덕의 본질은 성

32) Stanley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문시영 역, 『교회됨』(성남: 북코리아, 2010), 173.

품의 함양에 있으며 교회는 성품함양을 위한 공동체이어야 한다. 그의 저서에 사용된 ‘성품의 공동체’(a community character)라는 표현도 이러한 관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덕의 한국기독교적 재론에서 참고해야 할 요소이다. 덕의 도구화를 넘어 덕의 내면화 혹은 덕의 성품화에 관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성품의 함양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어떤’ 덕, ‘어떤’ 내러티브인가의 문제 즉 덕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이 필수적이다.³³⁾ 기독교의 덕은 맥킨타이어가 말하는 내러티브와 성품에 대한 관심 및 공동체적 가치의 회복과 통하는 요소들 이외에 독특하고도 고유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는 덕의 한국기독교적 수용과정에 덕 개념의 교차점에 있다는 점과 더불어 왜곡의 우려 또한 상존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자문화권에서 덕의 교차점에 있는 한국 기독교는 덕의 왜곡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덕의 성품화는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군자’(聖人君子)의 관점일 수 없다. 온화하고 후덕(厚德)한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은 권장할만한 일이지만, 그것이 곧 기독교가 추구하는 덕의 성품화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뜻에서, 한국기독교의 ‘성화’ 개념이 복음 이외의 종교들에 오염되어 있다는 지적은 중요하다. ‘수양적 성화론’은 한국기독교의 대표적인 성화 개념이 되었지만 은혜를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길선주 등이 도교의 수련에 정진하여 상당한 경지에 이른 후 회심한 탓에, 수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으로서의 성화 개념을 약화시키고 동양의 수양방법이던 경전연구, 기도와 묵상, 고행과 훈련 등을 도입하여 성경읽기와 성경공부, 기도와 금식, 선행과 헌금 등을 강조한 경향이 그렇다. 그리고 운명적 성화론은 불교의 업보사상 등을

33) Stanley Hauerwas, 『교회됨』(서울: 북코리아, 2010), 20.

배경으로 한다. 인간의 행위는 모두 악할 뿐이며, 성화는 구원과 무관한 상급일 뿐이라는 오해로 이어졌을 우려도 있다. 또한, 신비적 성화론은 성화를 황홀경의 신비체험과 동일시하여 신비체험 없는 성화를 부정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요컨대, 기독교의 성화와 전통종교들이 말하는 성화를 혼동하는 상태에 있으며 세속화된 성화론이 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³⁴⁾ 덕의 한국기독교적 재론을 위한 관심에서 극복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참고자료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하우어워스의 지적은 한국기독교가 추구해야 할 덕 윤리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에 따르면, 예수 내러티브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덕(德), 다시 말해 기독교적 성품을 형성시키는 원천이다.³⁵⁾ 유교적 성인군자를 넘어서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까지도 넘어서 예수 내러티브에 근거한 덕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으로 응용할 수 있겠다. 말하자면, 덕 윤리에 대한 기독교적 재론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Christian as Christian)의 육성으로 이어져야 한다.³⁶⁾ 하우어워스가 예수 내러티브에 의한 덕의 성품화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인은 덕스러운 성품의 소유자와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고유의 내러티브로서의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도덕성숙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에 합당한 훈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다양한 훈육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다루시는 이야기를 깨닫고 그 이야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배우게 되는 훈육을 가리켜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습관을 계발시켜

34) 이정석, ‘한국교회의 성화론’, 『개신논집』제2집(1995), 129~137.

35) Stanley Hauerwas, 『교회됨』, 187.

36) Stanley Hauerwas, 『교회됨』, 92.

야 한다.³⁷⁾

이러한 관점을 참고할 때, 오늘의 한국기독교에는 교회됨과 그리스도 인됨에 관한 성찰이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신앙을 통해 복음의 성품화를 추구하기보다 번영을 추구하기에 급급하고 덕을 말하는 경우조차도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경향이 여전하다. 덕의 내면화 내지는 성품화가 절실한 이유이다. 한국기독교에서 ‘덕을 세우다’를 다시 말해야 한다면, 그것은 권위주의를 위한 도구이어서는 안 된다. 교회성장을 위한 도덕의 생략으로 이어져서도 곤란하다. 요컨대, 덕의 성품화를 추구해야 하고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덕의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됨’(being Christian)에 주목해야 한다.

2) ‘제자도’에 기초한 덕 윤리의 구현

덕의 한국기독교적 재론이 덕의 성품화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특별히 ‘제자도’(discipleship)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다만, ‘제자도’를 성경공부 프로그램 혹은 항존직 양성의 필수과정으로 도구화시키는 ‘제자훈련’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키려는 것인지 혹은 목회자의 제자를 만들려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프로그램으로서의 제자 훈련과 같은 것일 수 없다. 일찍이 본회퍼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Christianity without Jesus Christ)에 대해 경고했던 것처럼, 제자도는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구분하는 분기점이다. 값싼 은혜란 제자도가 없는 은혜를 말한다. 반면에, 값비싼 은혜는 예수의 부르심에 따르는 은혜로서,³⁸⁾ 제자 직에의 부르심(the call to discipleship)이 그 핵심이다.

37) Stanley Hauerwas, 『교회됨』, 289.

38) Dietrich Bonhoeffer, *Nachfolge*, trans. by R. H. Fuller, *The Cost of Discipleship* (New York: SCM Press, 1995), 44.

‘제자도의 실천’이 절실하다는 뜻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덕의 한국기독교적 재론을 위해 참고하고 있는 하우어워스가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요점이기도 하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됨을 추구하는 덕의 성품화는 ‘복음의 증인’(witness of Gospel)이 되는 것을 윤리적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³⁹⁾ 이를 위해 하우어워스는 특히 ‘제자도’ 혹은 ‘도제관계’에 비유되는 성품의 훈련, 특히 예수 내러티브의 성품화를 강조한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순종하여 이루어내신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에 속하는 것을 뜻한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칸트처럼 정언명법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 주(主)를 닮아가기를 배워가는 과정을 통해서이다. 도덕철학에서는 제자도를 타율로 간주하겠지만, 제자도가 말하는 닮아감 즉 모방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제자도는 선형적 원칙들로 환원될 수 없고 혹은 그 원칙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도덕이란 선택에 의한 보편적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덕은 그분을 본받는 것이다.⁴⁰⁾

물론, 하우어워스가 유일한 정답인 것은 아니다. 거스타프슨(James Gustafson)이 말한 ‘소중과적 유혹’의 비판은 하우어워스에게 치명적인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 하우어워스의 성화 개념에 대한 코트바의 비판 역시 정당하다. 하우어워스가 성품과 덕, 죄와 은혜와 제자도의 개념들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이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전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⁴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의

39) Stanley Hauerwas, 『교회됨』, 30.

40) Stanley Hauerwas, 『교회됨』, 253.

41) L. Gregory Jones, *Transformed Judgment: Toward a Trinitarian Account of the Moral Life*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0), 17.

한국기독교적 재론에 참고할만한 가이드 역할은 충분해 보인다. 제자도의 실천은 덕의 한국기독교적 재론이 추구해야 할 과제로서, 이것은 개인의 성화에 대한 각성과 그에 기초한 사회적 성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야 한다. 신앙의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를 넘어설 길 또한 제자도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하우어워스의 관점에 더하여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의 ‘공공신학’(public theology)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이 절실하다.⁴²⁾ 덕 윤리를 이웃과 사회를 향한 실천으로 확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III. 나가는 말

한국기독교의 도덕적 성숙이 긴요하고 절실한 시대, 그 조건과 과제는 무엇인가? 이제까지 우리는 맥킨타이어가 촉발시킨 덕의 재론이 현대사회의 윤리적 위기에 대한 진단 및 해법과 관련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하우어워스의 기독교적 관점을 덕 윤리의 한국기독교적 재론의 조건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한국기독교의 도덕적 성숙을 위한 논의를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덕 윤리의 바른 재론을 시도한 것이라 하겠다.

사실, ‘덕’을 배경으로 했던 아시아문화권에 속한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이 어떤 형태로든 덕의 재론에 무관심할 수 없다. 특히, 한국기독교는 유교적 덕과 기독교적 덕의 교차점에서 성경번역과 건덕의 규범화 과정을 거쳐 덕 윤리를 본격적으로 수용했다. 덕 윤리의 수용이 한국기독교의 공동체적 관심을 함양하는 순기능을 수행하기도 했지만, 권위주의 내지는 유교적 가족주의와 결합되는 왜곡의 우려 또한 공존해왔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사회의 압축성장과 유사한 교회성장의 과정에서

42) 이 주제에 관해서는 다음 책을 추천한다. 문시영, 『교회의 윤리개혁을 향하여: 공공신학과 교회윤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

덕의 도구화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교회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덕의 전통을 교회공동체 지키기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변영신학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아 덕의 도구화를 자행했다는 점에 대해 한국기독교의 철저한 자성이 필수적이다. 말하자면, 덕 윤리의 한국기독교적 재론을 위한 조건은 덕의 왜곡과 도구화에 대한 깊은 자성이다.

덕 윤리의 한국기독교적 재론의 과제는 이러한 덕의 도구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를 위하여 덕의 내면화 혹은 덕의 성품화에 관심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복음에 충실한 덕 윤리를 확립해야 한다. 덕 윤리에 대한 관심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관심으로 이어져야 하며, 제자도를 구현함으로써 한국기독교의 도덕적 성숙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참고문헌

- Bonhoeffer, Dietrich. *Nachfolge*, trans. by R. H. Fuller, *The Cost of Discipleship*, New York: SCM Press, 1995.
- Fergusson, David. *Community, Liberalism, and Christian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Furnish, V. P. 김용옥 역. 『바울의 신학과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4.
- Gasque, W. W. “번영신학과 신약성경.” 『성경과 신학』. 제17집 (1995) ??-??
- Hanegraaff, Hank. *Christianity in Crisis*, 김성웅 역. 『바벨탑에 갇힌 교회』,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 Hauerwas, Stanley.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3.
- Hauerwas, Stanley. *A Community of Character*. 문시영 옮김. 『교회됨』. 서울; 북코리아, 2010.
- Jones, L. Gregory. *Transformed Judgment: Toward a Trinitarian Account of the Moral Life*.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0.
- Kotva, Joseph J. Jr. *The Christian Case for Virtue Ethics*. 문시영 역. 『덕 윤리의 신학적 기초』성남: 궁홀, 2012.
- MacIntyre, Alasdair. *After Virtue*. 2nded.,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4.
- 고유식. “기독교 폭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목회신학적 돌봄 연구: 한국 교회 내 권위주의문화와 권력중심문화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목회와 상담』. 제 30집 (2018). 7-42.
- 권상우. “안동지역의 선비-기독교인 연구(2): 기독교적 유교와 유교적 기독교.” 『민족문화논총』. 제68집 (2018). 1-24.
- 김권정. “한국기독교 초기 유교지식인의 기독교사회윤리 연구: 월남 이상재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20집 (2010). 103-129.
- 김도일. “유교 가족주의의 이중성: 파벌과 권위주의의 유가적 기원.” 『철학』. 제135집 (2018). 1-22.
- 김봉근. “기독교와 유교 사상의 창조적 융합으로서의 운동주 시 읽기.” 『상허학보』.

- 제54집 (2018). 189-238.
- 김성은. “이수정의 성경번역과 계몽문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3집 (2015). 69-91.
- 김연진. “성경번역 사역에서 번역자의 신학적 의도가 미치는 영향.” 『안양대논문집』. 제1집 (1996). 127-147.
- 류장현. “번영신학에 대한 신학적 비판.” 『신학논단』. 제61집 (2010). 7-30.
- 문시영. 『교회됨의 윤리: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 연구』, 성남: 북코리아, 2013.
- _____. 『교회의 윤리개혁을 향하여: 공공신학과 교회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
- _____. “복음에 합당한 은혜윤리를 재건하라.” 『목회와 신학』. 제303집 (2014.9 월호). 99-103.
- _____. “탐욕의 길 vs. 제자의 길: 본회퍼 윤리의 한 응용 - 『나를 따르라』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98집 (2015). 177-201.
- 민영진, 전무용. “한국어 번역 성경에 나타난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의 영향.” 『성경원문연구』. 제19집 (2006). 176-199.
- 박충구. “한국교회의 기독교윤리학적 성향과 그 문제점.” 『사회이론』. 제35집 (2009). 133-161.
- 배요한. “이퇴계와 이수정의 종교성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 유교와 한국 개신교의 내적 연계성에 대한 고찰.” 『장신논단』. 제45권 1호 (2013). 233-258.
- 서정민. 『한국교회의 역사』, 서울: 살림출판사, 2003.
- 선우 현. “공동체주의의 그림자: 신보수주의의 정당화 논리.” 『사회와 철학』. 제29집 (2015). 23-78.
- 소요한. “초기 한국 기독교 사상의 유교적 이해.” 『신학논단』. 제92집 (2018). 221-244.
- 이상규.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 서울: 생명의 양식, 2007.
- 이은선. “유교와 기독교, 그 만남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하여.” 『신학사상』. 제82집 (1993). 220-250.
- 이정배. “유교와 기독교의 대화, 그 한국적 전개: 평가와 전망을 중심으로.” 『신학과 세계』. 제2004-3호 (2004). 74-110.
- 이정석. “한국교회의 성화론.” 『개신논집』. 제2집 (1995). 103-137.
- 장동익. “덕 윤리적 관점과 유교윤리.” 『도덕윤리과교육』. 제36집 (2012). 171-189.

조남욱. “유교정치에서의 덕의 문제.” 『윤리연구』. 제29집 (1990). 219-240.

최승락. “바울의 덕 사상과 덕 철학의 점점 찾기.” 『성경과 신학』. 제59집 (2011). 37-71.

황경식. “왜 다시 덕 윤리가 문제되는가?” 『철학』. 제95집 (2008). 199-233.

논문투고일: 2019년 6월 21일

심사개시일: 2019년 7월 16일

게재확정일: 2019년 8월 12일

• 국 문 초 록 •

맥킨타이어가 촉발시킨 덕의 재론은 현대사회의 윤리적 위기에 대한 진단 및 해법과 연관된다. ‘덕’을 배경으로 했던 아시아문화권에 속한 한국기독교는 어떤 형태로든 덕의 재론에 무관심할 수 없다. 특히, 한국기독교의 도덕적 성숙을 위한 논의에서 덕 윤리는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타깝게도, 덕에 관한 한국기독교의 경험은 덕의 재론에 적극적이지 못하게 하는 트라우마에 가깝다. 이러한 맥락에서, 덕 윤리의 한국기독교적 재론은 자성을 바탕으로 도덕적 성숙의 과제를 제시하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

덕의 한국기독교적 재론의 조건으로, (1)‘덕의 도구화’로 특징되는 갈등과 왜곡에 관한 자성이 필수적이다. 크게 두 가지 갈등이 나타난다. ①유교와의 갈등: 성경번역에 ‘덕을 세우다’의 표현이 적용된 것은 한·중·일의 공통사항으로, 덕의 교차점에 해당한다. 이러한 수용과정에서 성경의 덕 윤리는 유교적 덕 윤리와 의 갈등과정을 겪으면서 선교초기에 한국기독교의 공동체 윤리와 도덕규범으로 기능했다. ②번영신학과의 갈등: 근대화시기에 또 다른 갈등을 겪었다. 한국사회의 압축성장과 맞물린 교회성장의 과정에서 교회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분 및 번영신학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시킨 덕의 도구화는 성경의 덕 윤리가 한국적 맥락에서 갈등을 겪은 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한다. (2)‘덕의 성품화’에 관심하는 한국기독교적 재론이 필요하다. 성경의 덕 윤리가 지닌 본래적 가치를 구현해야 할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제자도에 기초한 덕의 성품화를 통하여 번영신학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주제어: 덕 윤리, 갈등, 덕의 도구화, 덕의 성품화, 제자도
